

발견의 첫걸음 1

좋아하는 것을 발견하는 법

이다혜 지음, 창비 2022



●●● 읽기 전 활동

가벼운 마음으로 자기 발견 테스트를 해 봅시다. 다음의 내용을 읽고, 나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라고 생각되면 체크해 보세요. 생각보다 좋아하는 게 많을 수도 있어요. 3개 이상 체크한 부분이 있다면 메모해 두세요. 해당 페이지를 먼저 읽어 봐도 좋습니다. **만약 3개 이상 체크한 부분이 없다면 앞에서부터 읽어 나가며, 공감이 되는 주제를 찾아보세요.**

자기 발견 테스트



1. 맛있는 건 매일 먹어도 좋잖아

- 우리 동네 '맛집'을 5곳 이상 알고 있다.
- 친구들이 나에게 모임 장소를 추천받는다.
- 좋은 학용품을 발견하면 친구에게 꼭 소개한다.
- 선호하는 지우개, 샤프, 펜의 브랜드가 따로 있다.
- 친구가 꼭 마음에 들어 할 선물을 고르는 데 자신 있다.
- 재미있게 본 책이나 영화를 다른 사람이 어떻게 봤는지 궁금하다.

3개 이상 체크했다면 26쪽으로 >>

2. 뭐든 한번 꾸며 보는 건 어때?

- 낙서하는 걸 좋아한다.
- 가끔 교과서에 웃긴 그림을 그린다.
- 다이어리를 쓰고 있다.
- 새 공책을 사면 마음이 설레고, 멋지게 쓰고 싶다.
- 예쁘고 근사한 걸 좋아한다.
- 잘 정리된 책상을 보면 기분이 좋아진다.

3개 이상 체크했다면 36쪽으로 >>

3. 그래도 게임은 좋아한다면

- 꾸준히 즐겨 하는 게임이 있다.
- 게임을 하면 스트레스가 풀리는 기분이 든다.
- 게임 스토리에 관해 이런저런 상상을 한다.
- 새로 나온 게임도 어렵지 않게 플레이하는 편이다.
- 좋아하는 게임들이 가진 각각의 매력과 장점을 이야기할 수 있다.
- 친구들과 게임 이야기를 할 때가 가장 즐겁다.



3개 이상 체크했다면 48쪽으로 >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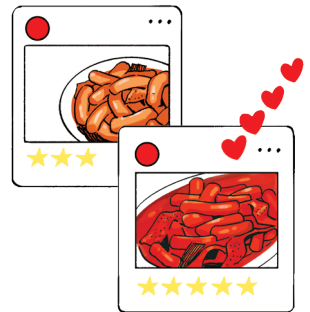
4. 뭐든 꾸준히 하는 것은 자신 있다면

- 특별히 잘하거나 좋아하는 일이 없다.
- 공부든 운동이든 중간 정도 할 자신은 있다.
- 숙제는 밀리지 않고 하는 편이다.
- 친구들과의 약속을 잘 지킨다.
- 평범한 어른들은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하다.
- 가끔 혼자서 조용히 보내는 시간이 편하고 좋다.

3개 이상 체크했다면 61쪽으로 >>

5. 유행은 따라 해야 직성이 풀린다면

- 유행하는 맛집이라면 얼마든지 줄 서서 먹을 수 있다.
- 어떤 옷과 신발이 유행인지 일찍 알아채는 편이다.
- 지금 음원 차트 1위인 노래 제목과 가수를 말할 수 있다.
- 잘 만든 광고를 보고 감탄한 적이 있다.
- 유명 인플루언서의 인기 비결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다.
- 친구들과 요즘 유행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게 즐겁다.



3개 이상 체크했다면 70쪽으로 >>

6. 스포츠는 언제나 즐겁지

- 새로운 운동 배우기가 즐겁다.
- 응원하는 프로스포츠 팀이 있다.
- 국가 대표 경기는 생방송과 재방송까지 챙겨 본다.
- 운동선수만큼 벤치에서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정체가 궁금하다.
- 경기의 흐름과 승부를 예측하는 데 재미를 느낀다.
- 누가 경기를 해설하는지에 따라 보는 재미가 다르다고 생각한다.

3개 이상 체크했다면 81쪽으로 >>

7. 가만히 지켜보는 걸 좋아한다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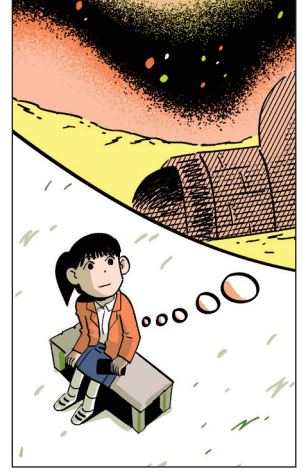
- 화분의 흙이 마른 것을 보고 물을 준 적이 있다.
- 집 앞에 꽃이 피거나 낙엽이 진 것을 금세 알아본다.
-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자리를 양보하면 마음이 뿌듯하다.
- 동생을 돌보는 것이 즐겁다.
- 친구네 고양이나 강아지와 잘 놀아 준다.
- 철새를 보면서 어디로 가는 걸까, 궁금했던 적이 있다.



3개 이상 체크했다면 93쪽으로 >>

8. 머릿속에는 우주와 미래뿐이라면

- 사이다를 마시다 탄산의 원리가 궁금해진 적이 있다.
- 인류는 언젠가 화성에 가야 한다고 믿는다.
- 우주를 배경으로 한 영화, 소설을 즐겨 본다.
- 가족 여행 때 별자리 관측하는 것을 좋아한다.
- 과학과 관련된 유튜브 채널을 구독 중이다.
- 신기한 어플리케이션을 보면 나도 언젠가 만들어 보고 싶다.



3개 이상 체크했다면 105쪽으로 >>

9. 역시 친구들이랑 노는 게 최고라면

- 같은 학년 애들 이름은 거의 다 아는 편이다.
- 반 친구들이 뭘 잘하는지, 누구랑 친하고 성격은 어떤지 대체로 파악하고 있다.
- 각기 다른 친구들과의 그룹 대화방이 5개 이상 된다.
- 가까운 친구들의 장점을 한 가지씩 말할 수 있다.
- 친구들과 수다 떠는 시간이 즐겁다.
- 의견이 다른 친구를 설득하는 과정이 흥미롭다.

3개 이상 체크했다면 117쪽으로 >>

10. 용돈 모으기가 쓰기보다 신난다면

- 내 관심은 돈이다.
- 용돈을 어떻게 쓸지 계획이 다 있다.
- 어떤 물건을 사기 위해 한 달 이상 용돈을 모아 본 적이 있다.
- 어떤 직업이 돈을 많이 버는지 궁금하다.
- 여러 사이트를 비교해 똑같은 물건을 더 저렴하게 사면 기분이 좋다.
- 친구들에게 간식이나 학용품을 팔아 돈을 벌어 볼까, 생각해 본 적이 있다.



3개 이상 체크했다면 128쪽으로 >>

11. '정주행' 하느라 밤새운 적 있다면

- 웹소설과 웹툰을 즐겨 읽는다.
- 지금 방송 중인 웹만한 드라마의 줄거리는 파악하고 있다.
-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지, 다음 상황을 잘 맞히는 편이다.
- 말하는 것보다 글로 쓰는 게 편하다.
- 친구들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 주고 싶은 욕심이 있다.
- 간단하게 동영상 편집하는 것을 좋아한다.

3개 이상 체크했다면 140쪽으로 >>

1. 어떤 문장을 체크했나요? 내가 체크한 문장을 옮겨 적어 봅시다.

●●● 읽는 중 활동

1. 책 속에서 '좋아하는 것'에 대해 이야기한 친구 중 누구의 이야기가 가장 재미있었나요?
혹은 가장 공감이 되었나요?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?

(예시) 진영(143쪽): 우리 누나가 고3인데, 수험생 공부 브이로그를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고 있어서,
나도 브이로그에 관심이 생겼다. 진영이처럼 가족들의 영상을 편집해 보면 재미있을 것 같다.

2. 책을 읽으며, 인상 깊은 문장이 있었다면 옮겨 적어 봅시다.

(예시) 153쪽: 너 자신을 탐구할 때 '외향적'이라거나 '내향적'이라는 말을 너무 신경 쓰지 마.
다른 사람을 이해할 때 역시 마찬가지야.

●●● 읽은 후 활동

1. 책을 읽으며, 메모해 둔 내용을 친구들과 나누어 봅시다. 다른 친구들은 무엇을 좋아하나요?
나와 전혀 다른 것을 좋아하나요? 나랑 비슷한 친구도 있나요?

2. 책 속의 형식을 따라, 내가 '좋아하는 것'에 대해 적어 봅시다.

(예시)

<내 노트의 별들>

우리 삼촌은 대학생인데 연극영화과에 다녀. 영화감독이 되겠다. 그래서 영화를 자주 봐.

그 영향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도 영화를 좋아해. 삼촌이 추천해서 핸드폰에 영화 감상 앱을 설치했어.

처음에는 그냥 본 영화를 기록해 보고 싶어서 하나씩 적어 놓았지.

별점 매긴 영화를 다 세어 보니까 100편이 넘어.

요즘에는 초등학교 때 엄마랑 본 애니메이션들도 새로 추가하고 있어.

앞으로도 이렇게 모아서 기록해 보고 싶어.

재미없는 영화는 글 없이 폭탄 개수로 기록해.

- 어쩌면 영화평론가가 될지도 모르는 시우